

로컬리포트

내장산리조트 골프장 조성 '순항'

9월부터 본사업 추진... 내년 가을 완공·2018년 봄 시범라운딩 예정

내장산리조트관광지 골프장 조성사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골프장 조성 사업주체인 대일개발(주)은 "이달 현재 골프장 조성에 필요한 자재를 확보하고 명품골프장 조성에 필요한 설계 인·허가를 착실히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사업 추진과 관련, 대일개발은 "지난해 7월말 시청 중회의실에서 한국관광공사 그리고 정읍시와 함께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골프장 부지 분양계약 체결 및 협약식을 가진 이후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해 12월 (주)대일내장산컨트리클럽 법인을 설립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사업계획을 승인받고 기본설계 중에 있으며 7월부터 본격적인 실시설계에 나섰고, 9월 중순까지 설계를 마치고 인허가 처리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9월부터는 본 사업 추진에 나서 2017년 가을 완공하고 이후 잔디 활착을 거쳐 2018년 봄 시범라운딩 후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와 관광공사 대일개발측은 상대적으로 좁은 부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내장산리조트관광지 골프장 조성 조감도

관계자는 "풍수지리학적으로 골프장 부지는 내장산으로 둘러싸인 주반형세가 매가 품은 형세를 하고 있다"며 "풍수지리 전문가 자문을 얻어 클럽하우스를 산중턱에 배치해 운산호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명품 골프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춘 골프장으로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대일개발 김호석 회장은 "골프장 이용객을 최우선에 두고 동선이 편안하고 뛰어난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설계를 통해 국내 최고 명품골프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 수 있도록 하겠다"며 "완공되면 내장산리조트 골프장이 정읍시를 사계절 체류형 관광도시로

거듭나는데 견인차가 될 것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와 리조트 분야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내장산리조트 골프장 조성은 정읍시 신정동·용산동 일원 91만5천547㎡에 총사업비 515억원을 투입해 대중제 18홀 코스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클럽하우스와 골프텔도 들어설 예정이다.

한편 시는 '사계절 체류형 관광도시 정읍'의 핵심 역할을 담당할 내장산리조트 골프장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조성계획 수립 등 각종 행정처리를 적극 지원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시농업기술센터, 빗물 이용 시설원에 안정생산 시범사업 추진

김제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하수 오염지역 및 물 부족 지역의 시설원에 안정생산과 물 부족 대비 빗물을 이용한 온실 빗물이용 시설원에 안정생산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김제시 농업기술센터는 사업비 5,000만 원을 확보하여 황산면 소재 연동형 시설하우스 0.5ha에 설치하여 빗물이용 시설채소 농업용수 안정적 공급에 힘쓸 수 있게 되었다.

빗물이용 시스템은 온실 지붕에 떨어지는 빗물을 모아 작물재배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설원예농가에 희소식이 되고 있다. 주요 설치내용은 빗물 집수 및 여과 저장 시설로 수질 측정장치(pH, EC측정기 등), 유량계, 저온기 빗물 여과장치 등 각종 이물질이 혼합된 초기 빗물은 사용자가 설정한 시간만큼 자동으로 흘러버리고 맑은 빗물만 모이도록 고안되었으며, 농가용으로 튼튼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되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 위촉

김제경찰서(서장 임상준)는 최근 경찰서 2층 우송실에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서장과 각 과장 및 시청, 교육지원청, 협력단체, 교수, 건축사 등 민·관·경으로 구성된 협의체 위원 20명이 참석하였으며, 위촉장 수여 및 여성범죄예방 특별치안활동에 대한 설명과 간담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범죄예방협의체는 지금까지의 범죄와 무질서에 대한 사후대응에서 벗어나, 지역 전문가들이 모여 범죄위험 요소에 사회적·물리적 환경 특성을 조사,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사전범죄예방 활동을 하게 된다

이날 위원들은 간담회를 통하여 '범죄 없는 안전한 김제를 만들기 위하여 민·관·경이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고, 세부적인 의견으로 '가로수에 보안등이 가려져 효과가 떨어진다'며 지자체에 대책마련을 요구하였고, 농촌지역에 공·폐기가 많아 청소년 탈선장소로 이용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 범죄 예방을 위한 여러 의견을 제시했다.

임상준 서장은 '범죄예방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되어 경찰업무에 협조해 주신 위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안전하고 밝은 김제를 만들기 위해 모든 시민의 의견을 듣고 함께 협조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사회복지연합실습 진행

김제시 관내 김제제일사회복지관, 길보문종합사회복지관, 김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 김제시노인전문요양원, 김제시정신건강증진센터(5개기관)가 주관하고 김제시사회복지협의회가 주최하는 2016년 김제시사회복지연합실습이 6월 27일부터 7월 15일까지 4주간의 일정으로 9개 대학 사회복지전공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습을 진행한다.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회복지 현장실습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9개 대학 20명의 사회복지전공학생들이 5개기관 슈퍼바이저들과 뜨거운 날씨만큼 사회복지에 대한 배우의 열정을 불태울 계획이다.

개별 기관에서 공명된 내용과 한정된 분야, 적은실습 참여인원등으로 진행되던 사회복지실습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실습이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5개 기관이 연합으로 ds 유형검사, 퍼실리테이션, 기관방문 등 현장 위주의 프로그램과 실무사회복지서비스를 경험하고 배우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자원봉사센터, 전북도 14개 시·군 평가 1위

지난해 네트워크 형성·공무원 참여 등 5개 항목 평가 결과

김제시자원봉사종합센터(센터장 정창섭)는 전라북도 주관 '14개 시·군 자원봉사센터 평가'에서 1위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날 5월에 최종심사를 거쳐 실시된 평가는 시·군 자원봉사센터간 자율경쟁을 통하여 조직운영 및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해 전북 14개 시·군 자원봉사센터를 대상으로 펼쳐졌다.

평가항목으로는 2015년 한해동안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도 네트워크 형성, 국정평가(자원봉사 활동 실인원 증가율, 수요처 활동 증가율), 공무원 자원봉사 참여율 등 5개 분야 9개 항목에 대한 1차 서면과 2차 현지확인 등 토대로 우수

센터 5곳을 선정하여 포상금을 지원한다.

김제시자원봉사센터는 2007년 대통령 표창을 수여한 이래 2013년 우수센터로 선정되었으며, 2015년에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경진대회에서 최우수로 선정,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상하였고 전국자원봉사대축제 우수사례 공모부문에서 다채움가족봉사단이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그간 양적인 확대에 이어 질적인 수준까지 두루 높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재능기부도 평생을 만들어 마을 어르신에게 센터를 제공하는 '도란도란 마을쉼터 평생만들기', 관내 경로당 순회봉사 '주물주물효사랑',

봉사와 여행이 함께하는 '해피통통 불린투어', '퐁당크레파스'를 모아 새 크레파스로 만들어 다시 나누는 '일곱빛깔 크레파스만들기', 각 자원봉사단체에서 참여하는 '클린김제만들기'와 '문화시민운동 인사합시다 캠페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와 나눔 활동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창섭 센터장은 "자원봉사단체 및 봉사자들의 적극적인 봉사활동 참여와 직원들이 각자 맡은바 업무에 충실하고 한마음으로 자원봉사활동에 힘써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발굴하여 행복한 김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새만금 2호 방조제, 김제시로 지적등록 완료

진봉면 심포리로 지명 부여

김제시(시장 이건설)는 지난 17일 지난해 10월 26일 행정자치부 소속 중앙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에서 새만금 2호 방조제를 김제시 관할로 한다는 결정이 있는 후 8개월여 만에 새만금 2호 방조제(9.9km)가 김제시로 지적등록이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중분위의 결정사항을 지난해 11월 13일에 김제시로 통보해왔고 이와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김제시에서는 2호 방조제를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로 지명을 부

여하였고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에서는 방조제 준공 검사 승인을 신청하여 매립면허 관청인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준공검사 최종 승인을 받았고 새만금개발청에서는 지적측량 성과도를 승인하고 지적등록을 완료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김제시는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추진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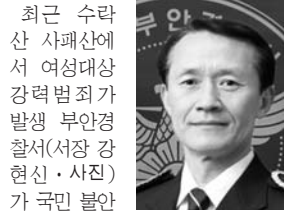
이로서 새만금 방조제가 명실상부한 세계 최장의 방조제로 준공이 완료되어 방조제 내 시설물의 건축물관리대장 등 새만금 방조제(1-4호)의 도로 이관 등 행정적 행위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동안 김제시에서는 방조제 지적등록을 대비하여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 회의를 개최하였고 재설작업, 쓰레기 수거, 해안선 정부 통계 반영 등 사전 준비를 꾸준히 해왔고 지적등록 후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행정 서비스를 전반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건설 김제시장은 "새만금 2호 방조제 지적등록이 완료됨에 따라 실질적 관할권행사의 근거가 마련되었다면서 2호 방조제 행정서비스는 물론 신항만 및 내측 매립지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부안경찰, 여성 강력범죄예방 총력

범죄 취약지 선정 순찰선 지정·거점 근무



최근 수락산 사패산에서 여성대상 강력범죄가 발생 부안경찰서(서장 강현신·사진)가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한 "여성안전 특별치안대책"을 여성 안전을 위한 특별치안강화활동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부안서는 범죄 취약지역을 선정해 여성 안전 확보를 하려고 해당 구역을 중심으로 순찰선을 지정하고 거점근무 등 가시적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부안경찰서 서림 지구대에 서 3구 역을 면밀히 재정비하여 기존구역의 존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살피고 추가 방범시설물 설치했다.

강현신 서장은 지난 8일 부안읍 소재 성 황산 등 3개소와 17일에 왕가산 외 3개소를 방문하여 여성안전에 대한 등산로 주변 범죄 취약지역을 진단하고 서림 지구대 등 지역경찰은 주·야간 관

내 취약지역 진단을 실시 및 간이 진단카드를 작성하고 있다.

강현신 서장을 비롯하여 생활안전과·계장, 범죄예방전담팀(CFO), 부안군 안전총괄과장, 국립공원관리소장 및 시민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안전 특별치안 및 범죄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갖고 관내 등산로 입구 등 CCTV 설치와 부안 마실 길 코스 별 안전사고 우려 지역 등 범죄예방에 대한 여성안전 특별치안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도서지역인 위도 초·중·고등학교를 찾아 학생 대상 학교폭력·성폭력 예방강의와 여교사 대상 성폭력 등 사전 예방간담회를 갖고 사회·문화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도서지역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현신 서장은 "여성 안전 확보를 하려고 여성 불안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순찰은 물론 부안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에 종사할 수 있도록 결해서 부모님을 모시듯 주민을 살피며, 치안질서 유지를 위한 단단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안=이옥수 기자

부안참뽕오디 홈쇼핑 판매 '불티'

청정 해역의 해풍을 맞고 자란 부안 참뽕오디가 홈쇼핑에서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다.

부안군 농업기술센터는 남부농협 및 하서농협에서 수매한 GAP(우수농산물) 인증 부안 참뽕오디를 공영 홈쇼핑 '이심쇼핑'을 통해 판매하고 있으며 지난 10일 1차 방송에서 4kg 단위 1000박스 총 4톤이 판매되는 등 큰 인기를 얻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안군은 20일 2차 방송을 실시해 부안 참뽕오디를 전국에 홍보할 계획이다.

부안군은 지난 2005년부터 지역특화작목으로 생 과용 오디 재배를 시작해 현재 전국 최대 생산지로 자리매김했으며 자체 브랜드 '부안참뽕'을 개발해 최고의 품질과 맛으로 소비자들에게 인정받고 있다.

농촌진흥청 연구결과 오디에는 필

수 아미노산이 다량 함유돼 있고 칼슘, 칼륨, 비타민 C, 철분, 항산화 색소 등이 풍부해 몸에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안 참뽕오디는 지난해부터 전국 이마트와 수도권 하나로 마트에서도 판매되고 있으며 부안군 영농조합과 온라인 쇼핑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오디농동과 및 가공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변산반도 국립공원 등 청정지역에서 재배되는 부안 참뽕오디의 우수성을 알리려고 자매도시인 부산광역시 수영구, 경북 포항시, 서울특별시 도봉구, 경기도 고양시 등을 방문해 홍보 활동을 벌였다"며 "앞으로도 홈쇼핑 판매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부안 오디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정읍시는 오는 20일부터 서울장학숙 선발요강을 공고하고 7월 4일부터 15일까지 접수, 7월 하순 제2차 운영 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입사대상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정읍 서울장학숙 9월부터 본격 운영

지역인재 양성의 산실이 될 정읍 장학숙이 9월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이에 따르면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일원에 건립 중인 정읍 장학숙이 오는 7월 준공된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0일부터 선발요강을 공고하고 7월 4일부터 15일까지 접수, 7월 하순 제2차 정읍 장학숙 운영 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입사대상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 16일 정읍 장학숙 운영위원회 위원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2016 하반기 입사생 선발계획 공고에 따른 심의·의결을 마쳤다. 이날 위원회는 수용규모를 총 38실에 98명(일반학

생, 학업성적 우수자, 예체능 계열, 대학원생)으로 최종 심의·의결했다. 자격 기준은 '수도권 소재(서울, 경기, 인천) 2년제 이상 대학 신입생과 재학생이며 자격요건으로는 입사지원자는 정읍지역 고등 학교 졸업자이고 공고일 현재 부모와 학생 중 어느 한사람이라도 정읍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이다.

정읍 장학숙은 연면적 3천997㎡,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이다. 기숙사와 독서실, 상담실, 휴게실, 체육단련실, 게스트룸, 다목적실 등 최첨단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입사비도 월15만원(3식 포함)으로 저렴한 편이다. /정읍=김대환 기자